

작가노트

김병호

소리가 난다는 것보다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계획에 의해 배열되었을 때 새로운 기능을 한다. 최근 조각 작품의 경우 작품 내부에서는 전자부품들이 전자기판에 집적화되어 전기적 진동을 만들어 낸다. 이 진동이 소리를 생성하는 것이다. 바로 주파수 변조(frequency modulation)이다. 물질 속에서 비물질적인 소리가 생성되는 것은 사회적 구조속에서 끊임 없이 추구되는 인류의 욕망과 같다. 판타지이다.

내 작업의 결과물은 '제품'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내 작품에서 제품 같은 외관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것이다. 인간의 몸이 원자로 구성 된다면,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범과 체계들로 조직화된다. 작업이 정교하게 가공된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설계단계부터 완성까지 산업 규격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것은 점점 더 분업화되고 획일화되는 물질세계를 대변하는 것이며, 현실세계의 구조가 작품에 기능적으로 개입된 것이다. 결국 내가 작업을 한다는 것은 동시대의 사회적 구조가 작품에 투영되는 과정이다.

작품은 기능면에서 제품과 극명하게 구별 된다. 제품은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작품은 예술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나는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변해가는 동시대의 구조와 체계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수 많은 기능으로 속이 가득 채워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 구조 뿐만아니라 동적인 기능을 수행 할 뉴 미디어의 적극적 활용을 계속 진행한다.

내 작품을 통해 이 두 가지가 보여지길 바란다. 첫 번째는 기능적인 면이다. 작품은 규격화된 원자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또 그 규격에 맞추어서 조립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이것이 곧 규범과 체계로 조직화된 사회적 구조가 작품에 기능적으로 투영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상징적인 면은 조형적인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작품 제작시 설계단계부터는 작품을 조립하기 위한 부품들의 구조와 기계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 결국 기능과 규격에 의해 체계화라는 조형성에 집중하는 것이다.